

교수 갑질·임용 비리·성적 조작...일그러진 상아탑

광주·전남 대학, 학과 존립 위기 속 학생 유치 편법·불법 잇따라
학생 성추행·금품수수 등 비위 반복...대학 사회 신뢰성 흔들려

광주·전남 지역 대학에서 국립대, 사립대를 막론하고 성적 조작, 불법 학생 유치 등 비리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학생 수가 줄어들자 제적생을 줄이려고 시험 성적을 조작하고 학생 수 미달 학과에 불법으로 학생을 유치하는가 하면, 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거나 금품을 받고 대학원생에게 갑질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비위가 반복되고 있다.
광주지법은 최근 재학생의 시험 성적을 조작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송원대 교수와 조교 등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각 교수에게 벌금 150~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학측으로부터 학과 존립이 위태롭다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아, 재학생들이 제적되지 않게 하려고 '대리 시험지'를 작성하고 채점하는 등 방법으로 시험 성적을 조작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영암군 세한대에서도 '가짜 학생'을 만들고 편법 전과를 하는 등 학생 불법 유치를 해온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세한대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간 각 7개 학과의 미충원 인원이 30명에 불과한데도 537명을 전과시켜 567명의 학생들을 규정 외 전과시켜 충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편입생 모집 과정에서는 지원자의 지망 학과를 임의로 바꿔 충원율이 낮은 16개 학과로 원서 접수를 받고, 장학금 지급 기준을 무시하고 신·편입생 29명의 등록금을 감면해 준 사

실도 적발됐다.
세한대는 지난 2023년 9월에도 법무부 지침을 어기고 동티모르 유학생 29명을 영암 캠퍼스의 자유전공학과에 불법으로 입학시키고, 유학생들을 진도군 전복 양식장에서 근로 허가도 받지 않고 일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했다.
대학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갑질'과 '금품수수', 성비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전남대에서는 대학원생이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대는 "규정상 불가피한 일"이라며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들에게 버젓이 2학기 수업을 배정해 주더니, 비판이 거세지고 해당 교수가 수업에서 자진 하차하자 "스스로 수업을 하지 않겠다면 상관 없다"고 말을 바꿨다.
전남대는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만에 가해 교수들을 전원 해임했으나, 지금까지도 총장 명의의 책임 있는 사과는 하지 않았다.

광주교대 교수는 돈을 받고 제자의 논문을 대필해 주고, 논문 심사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9월 광주지법에서 열린 해당 교수의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은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이 선고됐다.
성희롱·성추행 사건도 반복되고 있다.
올해 초에는 학생과 대학 관계자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일삼은 전남대 교수들이 잇따라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했다.
지난 2월에는 재학생에게 성희롱을 저질렀다가 해임된 전남대 교수가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했다.
해당 교수는 지난 2021년 동아리 회식 장소에서 학생들에게 외모 폄평 발언을 하고, 어깨를 당기면서 신체 접촉을 한 데 이어 동아리 후배들과 악수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목을 끌어당겨 이마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성추행 행위를 저질렀다가

2023년 해임됐다.
지난 1월에는 성비위로 해임된 또 다른 전남대 교수가 광주지법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가 기각당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지위를 이용해 갑질하고 범법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국립대와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편법으로 학생 수를 채우는데 급급한 사립대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재만 참여자치21 대표는 "국립대에서도 특히 교수들의 성희롱 문제들이 잇을만하면 반복되고 있고, 사립대는 취학 인구가 줄어들면서 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현실 속 불법이 만연하고 있다"며 "대학이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걸 벗고 스스로 투명하고 개방적인 점검 시스템과 자정 능력을 갖춰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24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전남도청 앞 광장에 야외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이 문을 연다. 목포와 무안에는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이 처음이라 지역민 관심이 쏠린다. <전남도 제공>

눈 귀한 곳에 스케이트장...도청 앞 'X-mas 선물'

눈썰매장 등 24일 개장...내년 2월 8일까지 무료 운영

연평균 기온 14도, 12월에 눈이 내린 날은 8일. 목포는 눈이 귀하다. 얼음도 쉽게 얼지 않는다.
연중 포근한 지역이니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이 있을 리 없다. 그런데 올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이 생긴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개장 날 '오픈 런'을 할 태세다. 40일이 넘는 운영기간 동안 온화한 날씨에 인공 눈과 얼음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지도 관심이이다.
23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전남도청 앞 광장에 야외스케이트장(가로 40m·세로 30m)과 눈 썰매장(세로 36m·가로 8m)이 문을 연다.
전남도가 최근 지역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꾸며 개방한 도청 앞 광장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창립 이래 최대 당기순이익(579억원)을 내고 당기순이익의 10%를 기부하는 개발공사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프로그램의 하나다.
썰매장과 스케이트장 주변에 동반한 부모들을 위한 휴게실과 의무실, 푸드 트럭 등도 마련

된다.
개발공사는 장비 대여료(스케이트장 2000원·눈썰매장 5000원)외에 입장료는 받지 않고 운영기로 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하다가 문을 닫은 광주시청 스케이트장의 경우 입장료와 스케이트·헬멧 대여료를 포함해 시간당 1000원을 이용료로 받았다. 광주시가 이용료를 반영해 당시 편성한 운영비는 6억 5000만원 규모였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폐장했다. 개발공사는 올해 개장 기간 관리·운영비로 4억 7000만원(설치비 포함)을 편성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제주항공 참사 부른 방위각시설은 위법"

권익위, 재설치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을 위법한 시설물로 판단하고 재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22일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시설이 관련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시설을 부러지지 쉬운 재질로 재설치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시정 권고했다.
권익위는 방위각시설이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공항안전운영기준' 등에서 규정한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방위각시설은 콘크리트墩대에 설치돼 있어

항공기 충돌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인명 피해를 크게 키웠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8월 4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로부터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제공시설 설치 부당' 민원을 받았다.
참사 유가족들은 "안전 불감증이 빚은 예고된 인재(人災)였음을 국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과 경찰은 이번 판단을 근거로 불법 시설물의 설계·시공·승인·관리 등에 관여한 모든 책임자를 수사해 엄벌하라"며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참사 1주기에 앞서 국민에게 공식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2030년까지 페플라스틱 배출 30% 추가 감축

정부, '컵 따로 계산제' 등 제시

정부가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30년까지 페플라스틱 배출을 전망치 대비 30% 넘게 감축한다는 목표를 내놔다.
감축 방안으로는 음료 영수증에 일회용컵 가격을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와 빨대 사용 제한,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 감량, 폐기물 부담금 단계적 인상 등을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종합대책 정부안을 공개했다.
전 세계 페플라스틱 배출량은 2019년 3억 5000만 t에서 2060년 10억 1000만 t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생활·사업장 페플라스틱 배출량은 2023년 771만 4000t 규모인데, 2030년에는 1012만 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부는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량 1백만 t에 페플라스틱을 다시 쓰는 재생 원료 2백만 t을 더해 2030년 페플라스틱을 7백만 t 규모로 전망치보다 3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일반용 폐기물 부담금을 단계적 인상하기로 했다. 또 원천 감량을 위해 기후부는 '컵 따로 계산제(가정)'를 내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컵 따로 계산제는 음료 영수증에 일회용컵 가격 200원 등을 별도 표시하는 제도다.
모든 빨대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소비자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5]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25. 12. 29.(월) ~ 31(수)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2026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입생 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학 과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인 문 사 회	신 학 과		21
	한국어교육학과		1
	복지상담융합학부		18
사 범	유아교육과		8
예 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10
총 계			58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국가)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민간)심리상담지도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5. 12. 29(월) ~ 31(수) · 전 형 일: 2026. 1. 9(금)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www.kwangshin.ac.kr